

《천안》호사건에 이어 감행된 연평도포격도발의 흑막을 폭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공개장 (2)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지난해 11월 2일 진상공개장(1)을 통하여 《천안》호사건이야말로 미국과 남조선적패당이 날조한 민족사상 초유의 특대형모략극이라는 결론을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온 세상에 폭로하였다.

그 이후에도 남조선의 전문가들이 《천안》호선체와 어뢰부분품의 함착물질형성과정을 주사굴현미경으로 정밀분석하는 등 총 11가지 실험을 진행하여 피뢰들의 조사결과를 과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온 세상에 공개되었다.

런이 합선침몰의 결정적물증으로 내놓았던 어뢰추진체내부에 서 꽃모양의 흰색물질이 붙어있는 조개껍질이 발견되어 이것이 1~2달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바다 물속에 있었기라는 확고한 증거가 나타나자 피뢰국방부가 스텔러 그것을 때버린 《조개껍질 제거》사건이 터져 사람들의 쓴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하면 사고수역에 대한 수색에 동원되었던 장교가 미군 잠수함구조작업중에 죽은것으로 확인되어 다시금 확대되고있는 《천안》호와 미군잠수함총들의혹》 등 날조극의 진상은 이 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파헤쳐지고있다.

《천안》호사건의 《북편린설》에 대해 남조선주민의 70% 이상이 의혹을 품고있고 그 나머지도 불신하거나 반신반의하고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미국과 역적패당이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천안》호사건과 련관된 증거물들을 판문점에 내다

놓고서라도 공동으로 조사평가하는 우리의 대법하고 야망있는 제의에 끝내 응해나오지 못하고있는 리유에 대하여서는 삼척동자도 알수 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은 이미 거덜이 날대로 난 《천안》호사건을 반공화국대결에 악용해보고 아직까지 생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연평도포격전의 책임자도 우리에게 전가시켜보려고 발악하고있다.

2월 8일과 9일에 있는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과정에 우리의 면전에서 먼저 회담장을 뛰쳐나가기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퇴장한듯이 진실을 옹호하는 역적패자피뢰들이 무슨 일인들 꾸며내지 못하겠는가.

연평도포격행위는 《천안》호사건이 특대형모략극으로 락인되어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받게 되자 그 죄과를 무마해버리고 북남관계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기 위해 무모한 선봉질투 우리 군대에 직접적인 군사적대결을 강요해나선 계획적인 도발이다.

《천안》호사건이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압박을 실행하기 위해 꾸며낸 1차 도발이라면 연평도포격전은 북침도화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계획적인 2차 도발이다.

지난해를 대결과 충돌의 한해로 얼룩지게 한 역적패당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두 사건을 동족대결에 계속 악용하면서 현실지만의 망발을 계속 내뱉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진상을 공개하기로 한다.

1. 연평도포격전의 실상

우리 나라 서해상에 위치하고있는 연평도는 면적이 6.8km, 둘레길이가 약 18km밖에 안되는 자그마한 섬이다.

어로부터 물고기의 종류와 어획량이 있어서 조선서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어장으로 유명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도 부러워하던 이 섬의 터전이 남조선피뢰호전관들에 의하여 해병대와 포무력이 집중배치된 북침전초기지로 전변되었다.

수많은 타격장비들을 연평도를 비롯한 조선서해 5개 섬에 집결중장시킨 역적패당은 이곳 수역에서 《북방한계선》고수를 위한 피뢰교포병 및 비행대사격계획을 꾸미며 도발의 기회를 노렸으나 우리 군대의 초강경자세와 내외 여론에 부딪쳐 좀처럼 실행할수 없었다.

남조선전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호국》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여지고있던 지난해 11월 22일 피뢰합동참모본부는 조선서해 연평도주변해역에서 23일과 24일 이틀간에 걸쳐 우리측 명해수역을 목표로 포사격을 강행할홍책을 꾸미었다.

우리 군대는 예민한 수역에서 군사적충돌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11월 23일 8시 피뢰군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었다.

통지문에는 우리측 명해에 대한 무모한 포사격계획을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는것, 만약 이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우리 군대의 단호한 물리적대응타격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남측이 전적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끝끝내 연평도에 배치된 포무력을 동원하여 우리측 명해에 불질을 해댔다.

연평도는 결국 우리에게 선봉질을 가해온 군사적도발의 본거지로 되었으며 응당한 징벌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평화적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철두철미 군사적도발의 본거지로 전변된 연평도의 피뢰군진지에 들쭉운 무자비한 물리적대응타격은 조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령해, 령공, 령토를 릴 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그 누구든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는 우리 백두산혁명장군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다시

2월 8일과 9일에 있는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과정에 우리의 면전에서 먼저 회담장을 뛰쳐나가기도 상대가 일방적으로 퇴장한듯이 진실을 옹호하는 역적패자피뢰들이 무슨 일인들 꾸며내지 못하겠는가.

연평도포격행위는 《천안》호사건이 특대형모략극으로 락인되어 내외의 커다란 비난과 규탄을 받게 되자 그 죄과를 무마해버리고 북남관계를 전쟁경계로 몰아가기 위해 무모한 선봉질투 우리 군대에 직접적인 군사적대결을 강요해나선 계획적인 도발이다.

《천안》호사건이 외세와 공조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적압박을 실행하기 위해 꾸며낸 1차 도발이라면 연평도포격전은 북침도화선에 불을 지피기 위한 계획적인 2차 도발이다.

지난해를 대결과 충돌의 한해로 얼룩지게 한 역적패당이 새해에 들어와서도 두 사건을 동족대결에 계속 악용하면서 현실지만의 망발을 계속 내뱉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연평도포격도발의 진상을 공개하기로 한다.

2. 연평도포격행위는 뿌리깊은 체계적도발의 연장

연평도포사격행위는 조선정전협정이 발효된 195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기를 이어오며 체계적으로 확대강화되어온 군사적도발의 연장이다.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해보려던 3년간의 침략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하게 된 피뢰들은 조선정전협정체결을 한사코 반대하고 《단독복진》을 떠들면서 정전협정을 폐기, 무효화하기 위해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우리측 해안과 근접해있고 정전협정체결시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못한 조선서해 5개 섬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남조선피뢰들은 이 수역을 발판으로 삼고 평화적어민들에 대한 람치와 살인,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장공격과 같은 범죄행위를 련이여 감행하면서 무모한 《단독복진》계획을 성사시켜보려고 발광하였다.

당시 이 수역에서의 군사적도발이 얼마나 엄중했는가 하는것은 정전협정체결이후 진행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서해 해상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의 군사적도발문제가 첫 의제로 취급되었다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있다.

남조선피뢰들에 의하여 조선서해해상수역은 북침전평도발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변되었으며 북남대결과 충돌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분쟁수역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1950년대를 거쳐 지난 세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들어와 조선서해해상에서 계단식으로 확대강화된 남조선피뢰들의 군사적도발은 90년대에 더는 수습하지 못할 위험천만한 군사적충돌에로 번져갔다.

1999년 6월에 발생한 1차 서해교전 이 그것을 말해준다.

3. 연평도포격도발을 통해 추구한 역적패당의 범죄적 기도

역적패당의 연평도포격행위는 《천안》호사건의 연장선에서 감행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지난해 3월 26일 무고한 사병들을 반공화국대결의 제물로 바치면서 조작한 《천안》호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적패당에게 불리하게 번져갔다.

《북편린설》을 립증시키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발표한 《조사결과》라는것은 온통 의혹투성이 뿐이어서 내외의 조소와 비난만을 증폭시켰던것이다.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진상공개장(1)은 《천안》호사건을 날조한 모략가들의 정체를 세게면전에서 날날이 폭로한 예리한 비수로 되었으며 미국과 역적패당은 그에 대꾸할 한마디 말도 찾지 못하였다.

모략가들은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킬 타개책을 찾아 전전공공 하였다.

미국과 역적패당은 그 《묘안》을 다름아닌 우리측 수역에 대한 포사격행위를 감행하여 우리 군대의 대응을 유도해내고 그것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전쟁경계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데서 찾았다.

그러하여 우리의 거듭되는 엄중경고를 무릅쓰고 거이여 우리측 수역에 총포탄을 쏟아내었다.

공인된 법적규범과 전례에 준하여 《북방한계선》이 설정된 것이라면 역적패당이 굳이 《고수》에 대해 애설 필요가 있겠는가.

피뢰들이 남조선의 하많은 섬들중에서도 북과 남사이 군사적대결이 첨예하게 지속되고있는 연평도에서 선봉질을 해댄 짓의 도는 그 존재여부가 날로 위태롭게 되어가고있는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자는데 있는것이다.

연평도포격도발은 또한 조선서해해상에서 군사적충돌을 야기시켜 민족공동의 고귀한 전취물인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무효화하고 이 수역을 영원히 대결과 충돌의 마당으로 만들어놓자는데 그 기도가 있다.

조선서해해상을 평화로운 수역으로 만들고 민족의 공리공영을 보장하는것은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념원이다.

지난 시기 발생한 수많은 군사적대결과 충돌로 하여 가슴아픈 회생을 당하고 북남어민들이 입은 경제손실과 피해가 천문학 적수자에 달한다.

력사적인 두 선언의 채택,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방안,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설정을 군사적으로 담보한다는 합의가 채택된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을 반영한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수치와 아픔을 자아내던 조선서해의 분쟁수역이 드디어 민족의 긍지와 기쁨을 더해주는 평화수역, 번영의 수역으로 전변되게 되리라는 겨레의 기대와 희망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거부감이 체질화되어있는 리명박역도는 청와대입장권을 거머쥐기 바쁘게 《비핵, 개방, 3 000》이라는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국책》으로 정하고 북남관계를 《리명의 자대》가 아니라 《실용의 자대》로 대할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이미 리명중인 민족사적인 북남합의들을 짓밟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역적패당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방지하고 민족의 공리공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까지도 그 무슨 《국민적공감대》와 《재정부담》 등을 구실로 완전히 무효화해버렸다.

민족공동의 고귀한 전취물인 북남합의들을 《우선할것》, 《나중에 할것》, 《하지 않을것》이라고 갈라놓고 그 모든것을 계단식으로 없애버리려 하는 간악한 홍개로 하여 력사적인 10.4선언리행은 완전히 중지되고 북남관계는 맹전시대의 대결상태로 되돌아갔으며 서해해상은 또다시 군사적대결과 충돌의 마당으로, 북침전쟁발발을 위한 전초기지, 공격출발진지로 되여 버렸다.

군사적충돌이 해상을 벗어나 육지까지 확대된 연평도포격전을 두고 리명중이 력사적인 10.4선언이 리행되었지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고 통탄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연평도포격도발은 또한 미국상전을 저들의 북침야망실현에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데 그 기도가 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설정을 첫째가는 목표로 설정한 리명박역도는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위해 천하의 매국매족적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전환을 연기하는 문제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미 2006년 9월 남조선미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피뢰군에 넘겨주기로 정식 락착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었기때문이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파괴적인 《안보불안》조성이 절실했었던 역적패당은 음모를 거듭하던 끝에 공해가 아닌 령해에서, 수상이 아닌 수중에서, 전지가 아닌 평시에, 한낮이 아닌 밤중에 《천안》호

침몰사건을 날조하였다.

이를 구실로 대규모련합해상연습을 련이어 벌여놓고 조선서해의 좁은 수역에 미제침략군 핵함포모함전단까지 끌어들이는 역적패당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전환연기를 위한 재협상에 들어갔으며 결국 전환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는데 성공하였다.

침시사대미국적인 전환연기책을 고수해보자는데 있는것이다.

4. 연평도포격도발의 배후조종자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의 연평도포격도발사건이 련이어 강행되자 세계의 이목은 《유엔군사령부》의 감투를 뒤집어쓰고 남조선에 도사리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일거일동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남조선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쥐고있고 더우기는 조선정전협정의 리행, 감독임무를 지니고있는 《유엔군사령부》의 실제적인인 미제가 피뢰들의 군사적도발을 사전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비호두둔해나섰기때문이다.

역적패당이 2차 연평도포사격계획을 공모하며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직전으로 끌고가고있을 때 미제는 《유엔군사령부》를 내세워 이번 훈련이 《정전협정을 준수한 가운데 정당하게 진행되는 훈련》이라고 극구 지지하였는가 하면 이 훈련을 그대로 내밀기 위해 통신, 의료 등의 지원에 《유엔군》소속인원 20여명을 연평도에 들이밀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여기에는 예민한 수역에서의 군사적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것을 북과 남의 관계를 벗어난 우리 군대와 《유엔군사령부》와 대결로 만들어놓으려는 악랄한 흥심이 깔려있었다.

미제는 역적패당의 군사적도발에 대해 《포사격훈련의 직접성》으로 여론을 기만하면서 쌍방사이 군사적충돌을 기정사실화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여기에 투입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우리 군대가 앞에서 얻어맞고 뒤에서 분풀이하는 식의 피뢰호전관들의 비렬한 관료적도발을 무시함으로써 쌍방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미제는 계획대로 순양함, 구축함, 핵잠수함, 상륙함 등과 수심대의 함정하여 대규모해상합동훈련을 벌려놓았다.

런이 1만여명의 미제침략군 병력과 핵함포모함전단, 150여대의 전투기를 일일 오키나와해상에 파견하여 일본 《자위대》의 3만 4 000명 병력과 40척의 함선, 250대의 비행기와 협동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여기에 피뢰들까지 《음씨버》 자격으로 끌어들이었다.

동시에 남조선과 일본의 수급사환군들을 워싱턴에 불러들여 공중이관을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동대응》과 《긴밀한 협력》을 보하였다.

《천안》호사건날조와 연평도포격도발에 따른 미제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조선반도정세의 긴장극화를 빚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대결구도를 수립완성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해보기 위해서이다.

이리 폭로된바와 같이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은 21세기 세계정복전략의 중핵이며 기둥이다.

이미 2006년 9월 남조선미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2월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피뢰군에 넘겨주기로 정식 락착된 사실이 세상에 공개되었기때문이었다.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파괴적인 《안보불안》조성이 절실했었던 역적패당은 음모를 거듭하던 끝에 공해가 아닌 령해에서, 수상이 아닌 수중에서, 전지가 아닌 평시에, 한낮이 아닌 밤중에 《천안》호

역적패당은 제2의 《천안》호사건 즉 《안보불안》을 지속시킬 충격적인 사건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면밀한 타산밑에 강행된것이 다름아닌 연평도포격도발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이 불순한 기도를 추후하기 위해 2010년이 저물어가는 때에 두차례에 걸쳐 모험적인 군사적도발을 일으켰으며 새해에 들어와서도 연평도포격도발을 반공화국대결에 계속 써먹고있는것이다.

반도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전 조선반도를 완전히 틀어쥐지 않고서는 아시아대륙을 지배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형성할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미제는 조선반도를 장악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대국들을 제압하면 세계를 손쉽게 제패할수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미제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말할기 위해 경제적교립과 질식, 심리전과 군사적압박 등 헤아릴수 없는 각종 수법을 다 적용해보았으나 굴욕적인 실패만을 거듭했으며 오히려 내외적환경과 위기로 하여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영향력과 지배권이 날로 더욱 약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미제에게는 오직 군사력에 의거한 영향력행사가 결실하였으며 그것은 타당한 명분을 요구하였다.

이로부터 미제는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날조에로 역적패당을 떠밀어주고 그 이후 《자위대대응》과 《교전규칙수정》을 공공연히 승인해주면서 북남사이 군사적충돌시 《대북통보》제공과 《F—22랩터》전투기를 비롯한 최첨단군사무력을 즉시 지원하여주면서 연평도포격도발을 강행하도록 부추기었다.

지난해 《천안》호사건날조와 연평도포격도발이후 미제의 음직임에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대결구도수립에 총력을 다하고있는것이다.

이전부터 추진되고있는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조선반도 《유사시》 미제침략공범이나리 일본 《자위대》무력까지 동원하여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제는 이 지역에 새로운 군사불력을 내오고 이를 통해 저들이 주도하는 군사불력들을 동, 서지역을 포괄하는 세계적범위로 확대해로 하고있다.

아시아판 나토의 위험성은 실재상 나토보다 더 크다. 나토에의 3만 4 000명 병력과 40척의 함선, 250대의 비행기와 협동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으며 여기에 피뢰들까지 《음씨버》 자격으로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에는 이 모든것이 다 들어있으며 나토에 비해 침략력이 더 강하고 그 수단과 작전방식이 보다 구체화되어있다.

미제가 연평도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명분으로 긴급모의관을 벌려놓고 그 누구의 《국지도발》에 피뢰호전관들을 돌격대로 내세우고 저들은 뒤에서 지원하며 일본반동들까지 동원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것은 다국적무력을 투입하여 북침전쟁을 치르어보려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이 모든것은 미제가 역적패당을 내세워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조작한 배후조종자라는것을 다시금 만천하에 폭로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5. 연평도포격전이 주는 심각한 교훈

미국과 역적패당에 의하여 발생한 연평도포격도발행위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고있다.

우선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철위하고 공정한 조선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하루빨리 설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오늘 《북방한계선》에 대한 관점과 립장은 조선서해에서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5 면으로 계속)

강성대국을 향해 가는 2011년

2011년이 두달 가까이 흘러갔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같이 맞이한 2011년이지만 시작부터 이 해를 바라보는 눈빛은 각이 하다.

세계를 휩쓰는 식량위기와 가뭄, 폭설, 수십년만에 들이닥친 강추위와 지구 온난화문제, 서유럽을 비롯 한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를 휘청거리게 한 경제 《한국》과 후유증, 인류의 평온에 불안 주는 테러위협, 내전과 종족분쟁의 확대, 피난민문제...

크든작든 인류의 생활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골치거리들이 2011년도 어느 하나 시원스레 풀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보다 비극적인것은 공포와 불안에 시달린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생의 좌절을 운명으로 감수하는데 있다.

단편적으로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탐욕의 세계에서 뛰쳐나갈 의향을 표시하

고 정신적라락자들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총탄을 탄사하는 가 하면 장기화된 《반테로진》의 후과로 수만명의 군인들이 약물중독에 빠져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해마다 실업과 빚에 시달린 수만명의 사람들이 정신적빈곤과 물질적기형에 허우적다 못해 자살을 택하고있지만 이른바 정치인들은 권력다툼에만 급급하고있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금융위기의 후과로 세계실업자수는 2억 500만명이나 되지만 올해에도 그들에게 밝은 전망이 열릴 희망은 없다고 한다.

세계의 첫 시작부터 기대 허물어지 한숨이 어두운 구름이 되어 지구우를 배회하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의 환경은 전혀 다르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마음속 그늘이나 비판같은 것은 찾아볼수 없다.

모두가 신심과 희망이 약동하는 생기발랄한 모습이다. 희천의 언제가 우뚝 솟아오

르고 대개도간척지가 뻗어가고 주체비, 주체비로, 주체비 날론이 쏟아지는 이 땅에서 자그마한 동요나 이색적인 변화를 찾을수 없다.

조선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고도로 안정되어있으며 자기의 생활을 창조해가고있다.

물론 공화국인들의 생활은 아직 넉넉치 못하다. 하지만 더 좋은 생활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미래를 마중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이다.

지금 이 땅에는 지구상 어디서도 볼수 없는 정신의 풍요로움이 가득 넘쳐흐르고 있다.

평등자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정신, 남을 쳐다보지 않고 제 힘으로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

한디로 투철한 자주정신, 신념과 의지의 힘이 공화국인민들의 정신력이다.

이 위대한 정신력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민족사적대경사를 계기로 더욱 양양되고있다.

이 정신력으로 공화국인민들은 2012년 강성대국에로 향한 이해의 출발선언을 단마디로 내렸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의지이고 실천이며 오늘의 비약이고 래일의 결과이다.

이런 정신력을 지닌 인민을 굴복시키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수십년간 공화국에 봉쇄와 압박, 제재를 가하고 지난해에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점경에까지 끌고갔다. 그러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비상한 정신력으로 이 땅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였으며 지난해에도 경제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계에 들어와서는 조선반도의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

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 폭넓은 북남 대화와 협상을 편이여 제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정신력에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정신력의 강자가 강자중의 강자이고 최후에 웃는자가 진자 강자라는것이 공화국인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2011년의 첫 발자국을 무겁게 떼고있을 때 공화국은 2012년 강성대국을 향한 비약의 나래를 퍼덕이고있다.

실말과 초조가 비긴 2011년의 하늘가에 조선에서 울리는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강성대국선포의 촉포가 터져오를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비약하는 공화국인민이 울헤에 또 어떤 통장훈을 부르겠는지는 2011년이 증명해 줄것이다.

백영호

일마전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의회 회장이며 길림시지부 책임자인 황진생동포가 통일신보편집국장으로 편지를 보내 왔다.

《통일신보》에독자의 한사람인 황진생동포가 보내는 편지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고장에서 사는 끝없는 긍지를 안고 통일강성

대국위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뜨거운 애국 열의가 자자구구 전해여왔다.

황진생동포는 편지에서 《통일신보》를 받아볼 때마다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해 비약해가는 조국의 눈부신 소식들을 제때 알려주기 위해 많은 수고를 바쳐가고있는 《통일신보》 기자, 편집진들을 생각하곤 한다고 하면서

언입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력사적인 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고있습니다.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되는것을 달가

에 빠뜨리고 겨레의 머리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고 발광하고있는 사실입니다.

남조선의 하찮은 산천과 섬들을 두고 하필이면 우리의 코앞에서 위협천만만도 발행위를 일삼는 전쟁광인자들의 책동이야말로 온 겨레의 규탄을 받아야 할 반민족적범죄행위입니다.

국도량단과 민족의 분열로 인하여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것도 우리 겨레이며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보다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도 다름아닌 우리 민족입니다.

헤에 살고있는 우리들은 북과 남, 해외가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겠습니다.

철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온 저는 크나큰 그 영광, 그 믿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대국건설과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한몸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아버지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심으로써 영광의 땅에 사는 해외공민들의 본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승리와 영광, 보다 큰 환희와 행복이 약속된 희망찬 새해에도 우리 해외동포들의 떨어질수 없는 길동무인 통일신보편집국동지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땅에 사는 해외공민들

공지를 더욱 빛내어나가겠다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이 꿈결에도 그리운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겨 즐겁고 유쾌한 나날을 보내었다.

뜻깊은 조국방문의 나날 학생소년들의 주제100년 설맞이모임에 참가한 제일조선 학생소년들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출동을 펼치며 조국과 민족, 후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강성변영의 웅대한 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

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설인사를 드렸다.

설화와 무용 《흥하는 래일로 날은 새》에 출연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세워 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시는 총

련의 아들딸들로 구김살없이 자라는 자기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노래와 춤에 담고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관중들의 높은 절찬을 받았다.

이 나날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은 만경대교합집, 주제

사상람, 대성산혁명렬사릉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세인들 경탄시키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조국의 벽찬 승결을 폐부로 느꼈고 휘황찬란한 래일을 기쁜 마

음으로 그려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 해주신 은정어린 다과회에 참가하여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서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은 사나운 이역의 풍파속에서도 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제일조선인운동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역세계 준비해갈 결의를 굳게 다지었다.

본사기자

그런데 지난해 8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의 고장 길림에 찾아오실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머나먼 길림육문중학교까지 몸소 찾아오시어 친필도 남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 활동을 벌리시던 북산공원의 약양묘를 비롯한 길림시의 여러곳을 방문하신 소식에 접하고 저희들은 걱정으로 눈시울을 적시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민족미래의 경사로운 2월의 명절과 당장진 65돌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측하 단성원들이 조국을 방문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기까지 모시고 성대한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영광도 받아안았습니다. 조국에서 보낸 나날들을 생각하면 꿈만 같기만 합니다.

《통일신보》에서 주장하고있는바와 같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의 가장 광명정대한 자주통일선언, 민족대단결선언, 평화통일선

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는것은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이 외세와 야합 명정대한 자주통일선언, 민족대단결선언, 평화통일선

조국의 사랑은 짜사로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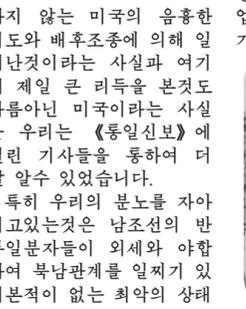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다과회에 참가하여



조국의 학생들과의 뜻깊은 련한모임



↑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방문단성원들
← 제일조선학생소년들이 출연하는 설맞이공연의 한장면



본사기자

(4 면에서 계속)

군사적경지에서 볼 때 조선서해에서는 이미 쌍방군사적충돌의 서막이 열린 상태이며 일단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지상과 공중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우리 민족의 생사는 물론 세계평화도 엄중히 위협하게 될것이다.

《북방한계선》은 국제해양법의 요구, 상해선의 12n. mile(해리)명해리존중원칙, 조선정전협정의 요구, 남조선의 《해양법》, 쌍방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점 등을 놓고보아도 통할수 없는 강도적인 유령선이다.

오죽하면 후안무치한 미제도 한때 제 나라에서 열렸던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 나라 지도를 배포하면서 거기에 조선서해의 북방 《가상한계선》을 국제해양법이 규정한 등기리원칙에 기초하여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표기하였겠는가.

역적패당의 연평도포격도발사건이 있는 후 광범한 국제사회계는 물론 미국에서도 《북방한계선》을 재설정할데 대한 요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전문가인 미국재정책센터 아시아회회국장 켈리

그 해리슨은 《남북간 서해분쟁해법은 매우 간단하다.》고 전제 한 다음 《미국은 분쟁지역에서 《북방한계선》이라고 불리우는 해상경계선을 약간 남쪽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재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1950년 11월 유엔안보보장리사회가 미국에 주 《한》 유엔군사령관지명명한을 준만큼 미국은 《북방한계선》을 재설정할 권한도 있으며 오바마행정부가 남북양국과 새로운 조선서해해상경계선설정문제를 협의해야 하며 다만 새 경계선이 합의되면 남측정부에 이를 거부할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적어 언급하였다.

세계 정계, 사회계, 학계를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도 미국이 《북방한계선》 철회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충돌과 분쟁의 불씨를 미제가 조성해놓고 역적패당이 그 불씨를 북돋우려는 악용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수역에서의 평화보장을 위한 새로운 서해해상경계선설정에 다름아닌 미국이 책임지고나서야 한다는 세계여론을

대변한것으로 된다.

현실은 조선서해해상에서 충돌과 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최우선과제는 서해해상경계선을 바로 설정하는데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조선서해에 새로운 해상군사분계선이 설정될 때까지 동중국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다.

평화수역을 설정하여 조선서해 동중국해가 아닌 민족번영의 바다로 만들어야하는 우리 겨레의 공통된 의지이다.

력사적인 10.4선언은 이를 반영하여 나온 민족사적합의이다.

10.4선언에는 군사적대결을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인 문제들이 천명되어있으며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밝혀져있다.

북남쌍방은 10.4선언리행을 위한 제2차 북남인민무력부장급회담과 북남장령급군사회담을 열고 서해해상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러한 합의를 실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원칙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거기에는 쌍방의 모든 기존주장들을 다같이 대법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와 정전협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적요구를 기초로 서해해상충돌문제를 다루어나가며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획기적인 방안들도 들어있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합의를 백지화해버렸으며 결과 이 수역에서의 충돌과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전면전쟁의 발화점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에게는 애당초 지난 시기 서해해상사건의 교훈과 우리의 원칙적인 해결방안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직 불법무법 《북방한계선》고수와 북침전쟁도발만 있다.

지난 력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북방한계선》고수립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조선서해해상군사분계선을 설

정하여야 하며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는 우리가 제안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방안실현에 달라붙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이를 거역하는자들은 곧 평화교란자, 전쟁도발자들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거거는 현재와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말이 있다.

불미스러운 과거에 집착되어 동족대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북과 남은 언제가서도 평화변영의 넓은 주위에 들어설수 없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지극히 자명하다.

북에 살든 남에 살든 해외에 살든 진실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라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더이상 거론하지도 그 어떤 전제조건으로도 내걸지 말아야 한다.

명백히 부언하건대 《천안》호사건은 철두철미 우리와 무관하다.

이는 백날, 천날이 가도 불변이다.

연평도포격전 역시 역적패당이 우리 수역에 먼저 불질을 해대지 않았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

을것이다.

나라가 분열되어 60년이 넘는 기간 우리 군대가 남조선지역과 수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포사격 훈련에 언제 한번 물리적대응을 가한적이 있었던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천안》호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계시키고 연평도포격도발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동족대결, 북남관계악화만을 피하고있다는 증거로 될 뿐이다.

최근 북남고위급군사회담개회를 위한 예비회담때 우리 군대가 《호상도발로 간주될수 있는 군사적행위들을 엄중함대하여》라는 의제를 내놓은것은 북과 남 사이에 오랜 기간 쌓여온 불신과 적대감으로부터 초래된 현 상황을 공명정대하게 하루빨리 해소하려는 드림없는 의지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역적패당이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모처럼 열린 북남군부대화마당에서 두 사건을 그 도록 집요하게 거들어낸것도 대화가 아닌 대결, 평화가 아닌 전쟁을 추구한데 있으며 결과 회담결결은 불보듯 뻔하였다.

남포—평양사이 바다물수송관건설 착공식 진행

남포—평양사이 바다물수송관이 건설된다.

수송관이 완공되면 평양 시민들에게 질 좋은 먹는물을 보다 일만치 보장하며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착공식이 22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건설자들과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박병중 평양시민인위원회 1부위원장의 착공사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평

를 짜고들며 설비와 자재보장을 확고히 앞세우는 한편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건설장이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든 건설자들이 높은 책임감을 지니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완공일을 앞당길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착공식이 끝난 후 첫 작업이 있었다.

본사기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우리의 조건없는 대화제를 외면하고 현 당국이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행위로 계속 징착되어 대결일변도로 내닫는 정황은 남녘땅이 《천안》호침몰 참채로 침몰되고 연평도처럼 속대발이 되는 비참한 후과만이 빛이 지게 되리라는 우려와 불안이 깊어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친미사대와 동족대결로 잔멸을 부지해나가고있는 역적패당은 두 사건을 결코 대결구면을 지속시켜 저들이 실정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치고있다.

미제와 역적패당이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행위에 대한 그 누구의 《책임》을 떠들어댄들 수북 반공화국대결광신자들로서의 흉악한 몰골과 흑백전도의 파렴치성만을 드러내놓게 될 뿐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에 둘도 없는 동족대결분자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고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 나갈것이다.

주제100(2011)년 2월 23일 평양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봄 기운이 서린 아름다운 평양

우리 민족의 단결력을 보여 주는 바줄당기기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민족놀이를 하나 해도 집단의 단결력과 정신력을 높이는 놀이를 즐겨하였는데 바줄당기기는 바로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단결력과 강한 정신력을 과시하는 우수한 민족놀이이다.

일찍이 원시시기 육체적 힘을 키우기 위해 나무뿌리나 돌을 비롯한 무거운 물체들을 잡아뜯거나 들어올리는 것으로부터 유래된 바줄당기기는 고대시기부터 점차 민족놀이의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세 나라시기와 그 이후시기에는 가장 인기있는 체육종목으로 일반화되었다.

《동국여지승람》, 《림파필기》 등 역사기록들에 의하면 바줄당기기는 정월대보름과 한가위를 비롯한 민속명절들에 성황리에 진행되곤 하였다.

특히 해례 정월대보름에는 전국각지에서 바줄당기기가 관례행사처럼 성대히 진행되곤 하였는데 그 광경이 정말 볼만 하였다고 한다.

당시 바줄당기기는 대체로 마을 호상간에 진행되었는데 경기전에 매 마을에서는 앞줄이 동근 고리로 된 바줄 한개씩을 준비하여야 했다.

이 바줄은 버짚이나 헝으로 굵게 끈 길이 300~400m, 두께 50~60cm인 원줄에 약 1m 간격으로 수많은 작은 바줄들을 달아 만든 육중한 것이었다.

원줄이 대단히 무겁고 두꺼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작은 바줄들을 쥐고 당기었는데 경기에서 진 팀은 상대방에 자기 바줄을 주게 되어 있었다.

이런 바줄을 준비하는 데는 힘이 적지 않게 들었다. 그래서 바줄을 만들 때에는 온 마을이 떨쳐나 힘과 지혜를 합쳐왔다.

경기 도중에 바줄이 끊어지

도 않구...》

성각은 그제서야 그가 지도를 마다하는 이유가 짐작이 갔다.

《그러니 이 분개선때문에 그림니까?》

주정필은 얼굴에 피로운 빛을 지으며 담배를 빨았다.

《그 저주로운 38분개선이 있어 나는 한순간에 아버지 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네. 또 귀여운 내 딸에는 지금 남의 집에 남아있고...》

두눈을 부릅뜨고 살아도 이놈의 분개선은 우리에게 죽음의 미끼를 던져놓고있었다.

《?!...》

주정필의 눈시울은 벌써 물기가 서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모든것을 터놓았다. 사나운 파도속에서 구원을 부르짖는 어부들을 사격대상으로 기총탄을 퍼붓는 미제의 살인마들에 대하여, 그 승냥이들이 쏘아대는 기총탄에 어린 손녀애를 구원하고

《경필동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기 또 정필동지가 처음 듣는 말들도 많아요. 그러니 단마리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지도를 가리키며) 동서로 지나간 선은 위로, 이것처럼 북남으로 내려간 선은 경도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고있는가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정필은 아직도 아리송하다는 듯 한참이나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 이 위도선이라는 곳에 38° 선도 있겠구만?》

김성각은 그가 조금씩 이해하는 듯싶어 활기를 띠며 설명했다.

《예, 그렇습니다. 우

운 농악을 울리면서 분위기를 돋구었다.

이어 육중한 바줄을 어깨에 맨 수백명의 바줄당기기 선수들이 바줄우에 올라선 팀의 총책임자인 편장의 구령에 맞추어 입장하였다.

서로 2~3m정도까지 접근하면 두 팀은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얼마간 버티기를 하였다. 잠시 후 두 바줄의 동근 고리를 맞추고 그속에 통나무를 끼워 띠를 걸 하면 경기준비가 끝났다.

높은 다락위에 올라선 심판이 경기시작을 알리면 선수들은 편장의 기발신호에 맞추어 있는 힘껏 바줄을 당기었는데 경기 가 고조에 이르던 구경하던 사람들은 경기장에까지 뛰어들어 자기 마을팀에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목이 터져서 응원을 하였다.

자기 팀의 바줄이 중간선에서 일정한 거리까지 끌려가면 경기에서 진것을 인정하고 무조건 바줄을 놓아주



본사기자

단편소설 아버지의 약속 (7)

글 량 홍 일, 그림 허 은 혁

리 나라는 이렇게 북위 43° 00' 36" 에 있는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와 남위 33° 06' 43" 에 위치한 제주도의 서남쪽에 있는 마라도사이에 놓여있답니다. 바로 여기 황해도 웅진군으로부터 강원도 양양군으로 쭉 가로질러간 위도선이 바로 38° 00' 선이구요.》

《한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며 눈을 감고있던 주정필은 갑자기 손에 든 지도를 성각에게 속 내밀었다.

《나한테 이런 지도는 필요없네.》

《?!...》

김성각은 얼굴에서 웃음을 짙게 가버렸다. 그가 무엇이 라고 말하였는지 다시금 곱씹어보았다. 방금전까지 멋있는 지도를 얻게 되었다고 입이 함박웃음처럼 벌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영문없이 달

아름다운 우리 말 《육신각신》

서로 심경이나 시비질을 하면서 다투는것을 《육신각신한다.》고 이른다.

장편소설 《땅》에는 《사랑제에서도 지금 개간에 대한 화제가 났는데 누구와 육신각신 떠드는 소리가 요란하다.》고 쓴 레가 있었다.

이 말은 《육신각신》이라는 말로 《울 때의 열기,

건강상식 민간요법 몇가지

- 생강을 짓찧어 아픈 부위에 붙이면 염증과 아픔을 가실수 있으며 피가 날 때 붙이면 지혈시킬수 있다. 생강조각을 배꼽에 붙이면 배멀미, 차멀미를 막을수 있고 생강탕을 마시면 감기를 예방할수 있다.
- 식초를 란 물로 양치질을 하면 인두염을 치료할수 있다.
- 손가락이 부어 아플 때 간장과 꿀을 따끈하게 덥혀 그속에 손가락을 잠그면 아픔이 멎고 부은것



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 기념우표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 주제 100(2011)년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예스21아에서 진행되는 제4차 국제무도경기대회를 기념하여 소형전지 1종과 묶음전지 1종을 발행하였다.

국제무도경기대회는 주제 93(2004)년 9월에 평양에서 제1차 경기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2년에 한번씩 진행되고있다.

70원우표(소형전지): 태련도

고사성구풀이 모기를 매달고 활을 익히다

모기를 매어달고 3년을 눈에 익힌 무사가 있었다.

...소년무사 아사남이 활을 매고 로강사 원선도사를 찾아가니 《궁술을 배우겠다? 좋은 일이지. 무술이 곧 애국이거든... 한테 순서가 있는 법이야. 활은 아직 놓아두고 먼저 한 3년 보는 재주부터 닦아야 해. 활을 잡는건 그다음 일이지.》라고 했다.

로강사의 가르침대로 소

달게... 바른쪽날개... 모기의 몸을 꿰고 마지막엔 다리만 매달려 간들거렸다.

《마지막! 실을 끊으라구.》 도사의 힘이 떨어지기 바쁘게 실이 끊어지고 다리가 날아났다.

아, 이것이었구나! 소년은 스승앞에 무릎을 꿇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궁사는 말했다. 《장하이, 이제 도통이라느거야. 하나까 도통이란 정성이요 노력이요 결국은 도정신(정신집중)이지. 하나 아직은 천리길의 첫걸음이니라...》

본사기자



대보던 중대장은 알뜰한 정비에 할 말이 없자 벌컥 어성을 높였다.

《조수는 어딜 갔소?》

《예, 방금 물뜨러 갔습니다.》

《그걸 가져오시오!》

《뭘 말입니까?》

《날 무슨 눈뜬 소경으로 아오? 윤전칸 의자밑에 감춘 걸 가져오시오!》

주정필은 당황해하며 나무 판자를 꺼내왔다. 그것을 대충 들고 보던 중대장은 도로 줄뿔을 얹고 그냥 큰소리를 내질렀다.

《누가 이따위 깡개질을 하라고 했소. 분대장이요? 소대장이요? 동무, 지금 무슨 시간이지?》

《낮잠시간입니다.》

《전투준비시간이요. 그 래, 이 하찮은 장난질때문에 오늘 새벽에 차를 버랑력으로 몰고갔겠소?》

《아니? 저...》

사실 오늘새벽 수송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윤전대를 잡은 주정필은 감격드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 깜박하니 눈을 감았던적이 있었다.